



평생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신 조만제 장로님

사진제공 · 이시호

목회

목회자

인물

# 삶에 파도를 일으키고 두 기둥을 세운 ‘조만제 장로님’

지금의 나는 ‘조만제 장로’를 만남으로 인해 빛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내 삶에 파도를 일으켰고, 나는 그 파도를 타고 즐겁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30년 전 만남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일으킨 내 삶의 파장과 그 의미를 나눈다.



이시호 목사

si286@hanmail.net  
bigtree.or.kr

큰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목**회 여정에서 특별히 신앙의 본질과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 준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조만제 장로(경희대학교 명예교수)님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책을 읽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라.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하는 네가 지도자가 되라'는 말에 도전을 받고, 평생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 온 분이시다.

경희대 교수로 은퇴하시고, '모든 교육의 기초는 신앙 교육, 모든 학습의 기초는 책 읽기'라는 신념 위에 '한국기독교청소년교육원'을 설립하고 평생 자비량으로 부모와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셨다.

### 만남: 배움의 목적과 목회 방향을 잡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대학 1학년이던 어느 날, 대학원 선배의 권유로 '제1회 청년교육과정'에 참석했다. 교육생은 나를 포함해 고작 네 명이었지만, 장로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온 힘과 열을 다해 강의하셨다. 그 진심 어린 눈빛과 말씀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시 책 읽기를 어려워하던 내게 그 만남은 '책과의

첫사랑' 같은 계기가 되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나는 교육원의 조교로 섬기며 매달 발행되던 「젊은 날의 만남」 편집과 장로님 저서의 교정 작업을 도왔다. 책이 한 권 한 권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는 일은 책과 가까워지며 책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로님은 청소년 교육의 핵심이 부모에게 있음을 깨닫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클럽을 개설하셨다. 그 클럽은 나중에 자녀들을 위한 읽기·쓰기·말하기·생활 훈련의 광야학교(독서 캠프)로 확장되었고, 나는 강사로 섬기며 지도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목회자 독서 클럽'에 참여해 20여 년 동안 책을 통한 배움과 나눔을 이어 오고 있다. 조 장로님은 내게 '배움의 목적은 섬김이며, 독서는 영성의 도구'라는 평생의 신념을 심어 주셨다.

그분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복음적 세계관으로 부모와 다음세대를 깨운 교육자이시다. 그분의 삶과 사상은 내게 '목회란 단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임을 깊이 깨닫게 했다.

### 키워드: '하나(님) 더하기(+)' 영성

조 장로님은 부모 교육과 독서 클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할 수 있다면 누구나 천재다'라고 말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더하기(+)'라는 영성운동을 실천하셨다.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이 메시지는 오늘의 목회 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한 복음적 지혜다. 그는 말한다.

"학위를 가지면, 돈을 가지면, 직위를 가지면 무엇이 되는가?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을 더해야 한다. 섬기기 위해 가지는 것이다."

이 철학은 교육을 '지식의 축적'이 아닌 '섬김의 도구'로 보는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그분은 또한 독서를 신앙적 훈련으로 여기셨다.

"책은 생각하기 위해서 읽으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읽기 위함이다. 또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을 읽는 것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듯, 독서는 우리의 영혼에 사색과 지혜의 씨를 심는 일이다."

장로님에게 있어 책 읽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지성과 영성, 감성과 덕성이 자라는 통로였다. 이러한

## 조만제 장로님은 책을 통해 내 안에 씨앗을 심으시고, 전화 한 통으로 삶에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조 장로님은 지성과 영성, 감성과 덕성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신앙인으로 ‘어른이 필요한 시대’에 참된 어른의 자리를 지켜 온 분이며 단지 학문적 멘토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신 영적 스승이시다. 그분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더 위대한 목회는 없다’는 것을….

이시호 목사 | 월간목회 2026년 1월호

사상은 오늘날 말씀과 사색이 메마른 세대에게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 교제: 삶의 방향키가 되어 주다

조 장로님의 삶은 단순한 교육자의 길을 넘어, 나의 사역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 모멘텀이 되었다.

#### 1\_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다

2012년 가을, 잠실의 주님기쁨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 ‘모멘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사였던 미국 CTK교회의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는 사역의 위기를 ‘하나님의 모멘텀’으로 전환하는 법을 전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모멘텀이 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너짐이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 인생에도 파도를 주옵소서.”

세미나가 끝나던 그날 밤, 오랜만에 조 장로님께 전화가 왔다.

“이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기존 교회보다 직접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폭풍처럼 울렸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내 인생에 파도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정을 살리며,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은혜의숲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날의 전화는 내 인생의 향로를 바꾸어 놓았다.

#### 2\_ 목회 철학을 설정하다

조 장로님의 삶은 내 목회 철학을 바꾸었다. 나는 그분을 통해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람을 키우라’는 말에 감동받아 평생 교육 사역에 헌신한 것처럼, 나 역시 다음세대의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을 목



사진제공 · 이시호

회의 핵심으로 삼게 되었다.

또한 그분의 '하나님 더하기' 정신은 내 설교와 목양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세속적 성공을 좇는 시대 속에서, 나는 성도들에게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하여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분의 삶이 실천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린이교회로 시작된 '큰나무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교회로 출발한 큰나무교회는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공동체다. '틈새포플러스학교'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인간, 생활, 봉사, 행복' 네 가지 가치를 심는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 현재: 사역의 두 기둥을 세우다

조 장로님은 지성과 영성, 감성과 덕성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신앙인으로 '어른이 필요한 시대에 참된 어

른의 자리를 지켜 오셨다. 장로님의 신앙과 교육,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철학은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린 '참된 스승의 모습'을 회복하게 한다.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다짐한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길러 내는 일, 지도자를 길러 내는 일에 힘쓰자.'

이제 나의 목회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하는 '하나님 더하기의 목회'로 나아가야 함을 확신한다.

조 장로님은 단지 학문적 멘토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신 영적 스승이셨다. 그분은 책을 통해 내 안에 씨앗을 심으셨고, 전화 한 통으로 내 삶에 파도를 일으키셨다. 그 씨앗은 지금도 목회의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분의 삶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더 위대한 목회는 없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신앙 교육과 독서 교육이라는 두 기둥 아래에서 조 장로님이 남기신 '하나님 더하기 신앙, 사람 세우기의 교육'이라는 목회적 사명을 이어 가고자 한다.☺